

정부,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안전한 수산물, 완벽한 관리에서부터!



도쿄전력이 최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됐음을 공식 인정하면서 국내에서는 ‘방사능 공포’가 커지고 있다. 가정의 식탁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습 기준을 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정리 편집실

수산물 8개현 전면 수입 금지

정부가 지난 9월 6일 발표한 「일본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은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로, 후쿠시마를 포함해 이바라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현 등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임시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에서도 세습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세

습의 경우 370Bq/kg에서 일본산 수입식품 기준인 100Bq/kg으로 강화하여 원산지가 둔갑되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일본산 수입식품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평양산 수산물도 안전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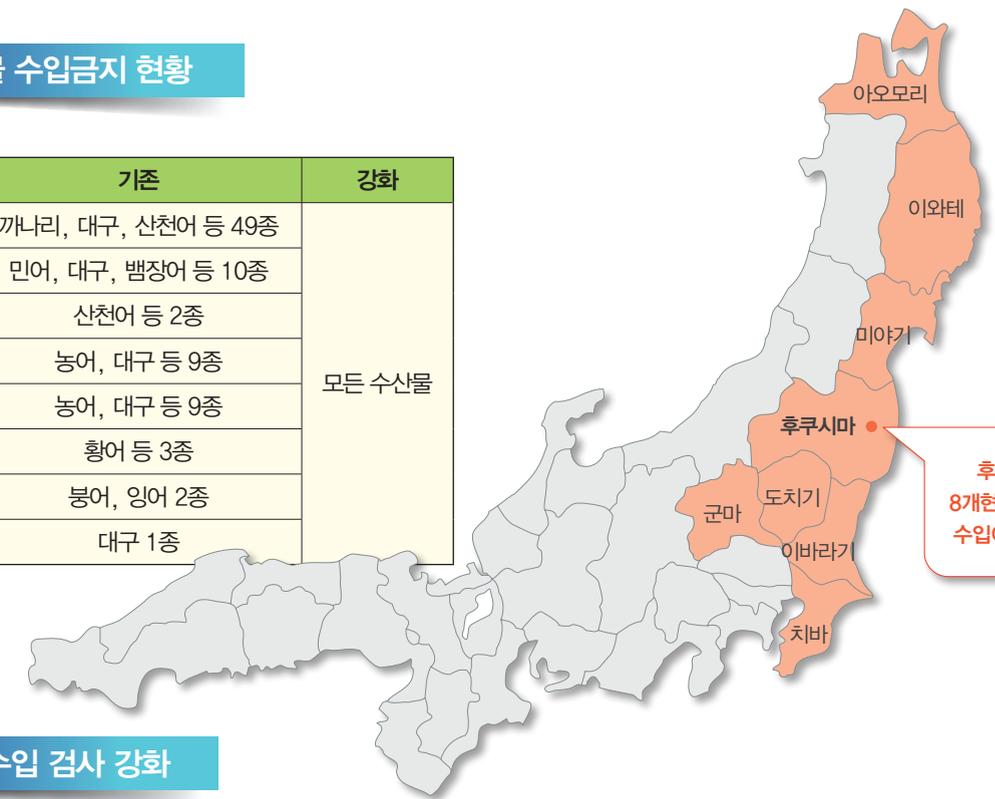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러시아 등 태평양산 명태, 고등어, 꽁치, 다

각국 식품 안전기준 비교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현황

구분	기준	강화
후쿠시마현	까나리, 대구, 산천어 등 49종	모든 수산물
이바라기현	민어, 대구, 뱀장어 등 10종	
군마현	산천어 등 2종	
미야기현	농어, 대구 등 9종	
이와테현	농어, 대구 등 9종	
도치기현	황어 등 3종	
치바현	붕어, 잉어 2종	
아오모리현	대구 1종	



후쿠시마 포함 8개현 모든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 검사 강화

기준		확대	
농산물 · 가공식품	비오염증명서	농산물 · 가공식품	비오염증명서
수산물 · 축산물	(100베크렐) 이하 수입 가능	수산물 · 축산물	



랑어, 상어, 가자미 등 6개 어종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왔으며, 지난 8월부터는 이들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러시아산 명태에 대해서는 주 5회로 검사를 확대하여 관리 중에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도 태평양 지역에서 어획되는 원양산 수산물 중 명태, 상어, 다랑어, 꽁치

등 4개 어종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27개 거점 해수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본산 뿐만 아니라 해류로 인해 오염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태평양산 명태, 고등어, 가자미, 다랑어, 상어, 꽁치(대만산은 매진) 등 주요 6개 어종에 대해 주 1회 검사를 주 2회로 강화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도 문제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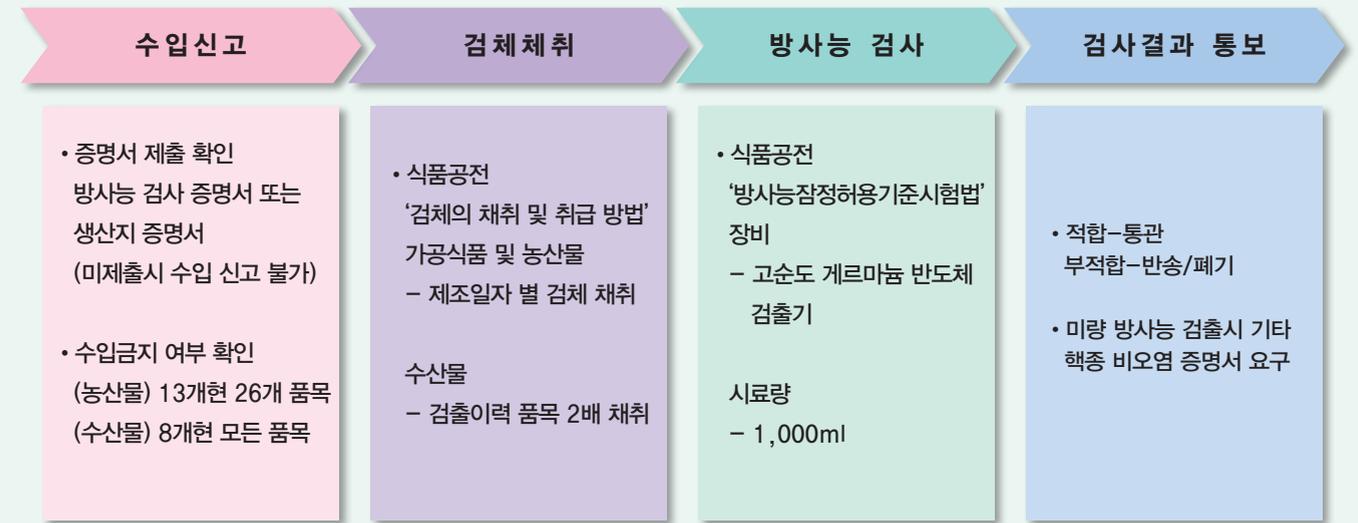
정부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연근해산(13개 품목) 및 원양산(4개 품목)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1,150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다. 또한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의 경

일본산 수입식품에 적용하는 방사능 기준

성분	우리나라	미국	EU
세슘	· 우유 · 영유아용식품(분유포함) : 50Bq/kg · 음료수 : 10Bq/kg · 일반식품 : 100Bq/kg	· 모든 식품 : 1,200Bq/kg	· 음료수, 우유 및 유제품 : 200Bq/kg
요오드	· 우유 · 유제품 및 영 · 유아식품 : 100Bq/kg · 그 외 식품 : 300Bq/kg	· 모든 식품 : 170Bq/kg	· 음료수, 우유 및 유제품 : 300Bq/kg · 그 외 식품 : 2,000Bq/kg

※ EU도 일본산수입식품에 한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방사능 기준을 준용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절차



우 연근해산은 주 1회, 원양산(태평양)은 2013년 9월부터 주 1회(45건)에서 주 2회(90건)로 강화하고 갈치, 고등어 등 연근해 수산물(14개 어종)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우려 되고 있는 명태, 다랑어, 상어, 꽁치 등의 경우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두 배로 강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내 축산물은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쇠고기 등 다소비 유통 축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전국 27개 지점(동해 8, 서해 6, 남해 · 동중국해 13) 해역에 대한 매월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2013년 7월까지 70건에 달하는 해역관리를 실시하였다. 연근해산 및 원양산에 대한 방사능 조사결과는

2013년 8월 21일부터 매주 2회(화, 금요일)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주요 동향은 매주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일본 원전 식의약 정보망' 및 670여개 기관에 공개하여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의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방사능 검사 강화, 검사 현장 개방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 향상을 향해 노력할 것이다.